
2021년 제1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4. 9. ~ 4. 1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9.	시청률	0.002

【총 평】

‘암태도-추포도 차로 간다.’는 추포대교의 개통을 축하하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표정을 담았고 ‘인공지능 승합택시 셔클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택시 시스템으로 그 편의성과 이용법을 소개했다. ‘독립정신을 심다’는 지역의 숨은 독립 운동가들을 기리고 광복회가 주최한 나무 심기 행사를 소개했고, "이봉주 선수! 함께 이겨냅시다."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봉주 선수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밖에 후원 이어지는 '천 원 식당'은 상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천 원 식당'을 소개하고 식당의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청년 성장 돕는 '청년 공간' 인기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마련한 청년들을 위한 여러 복지 시설과 제도를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 3백 년 주민 숙원 신안군 '추포대교' 개통

전남 신안군 13번째 대교인 암태도와 추포도 연결 소식을 전했다. 350년 역사를 지닌 추포도에 육지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추포대교가 5년 만에 완공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줬다는 내용과 추포대교 완공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려요! 승합택시 '셔클'

국내 처음 등장한 수요 응답형 승합택시 '셔클'을 알리는 리포트였다.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승합차 택시 '셔클'은 올 3월부터 서울시 은평구에서 운행 중인데 대기업 자동차 회사와 협업, 인공지능 기반의 승객 최적 경로 운행 등을 소개했다.

■ 애국 열사의 모교에 독립정신을 심다

독립운동가의 모교에 나무를 심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배들에게 알리는 소식이 었다. 부산시 구포 초등학교에 심겨진 윤현진 독립 열사, 전남 여수 돌산초등학교에 새겨진 주재년 독립 열사의 독립운동정신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역사 속에서도 빛나고 있음을 알렸다.

■ "이봉주 선수! 함께 이겨냅시다" 응원 손길 이어져

한국 마라톤계의 신기록 보유자인 이봉주 선수는 작년부터 알 수 없는 난치병으로 고향 천안에서 치료 중인데, 현재 증상을 소개하였고, 체육인과 고향 천안시민들의 도움의 손길 운동, 이봉주 선수의 재기 의욕 등 이봉주 선수의 재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담긴 훈훈한 리포트였다.

■ 청년 성장 돕는 '청년 공간' 인기

경기도 용인시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지난해 청년들을 위해 조성한 용인 청년 공간에서 지역 청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소식을 전달했다. 인문학 서재, 청년들이 관심 있는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실력이나 소양을 쌓고 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9.	시청률	0.000

【총 평】

‘집값 상승폭 둔화, 2.4대책 후속 조치와 시장 전망’은 정부의 2.4공급확대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음을 알리고 2.4대책 세부 추진상황과 공공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최근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효과는 물론 연속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재강조해 부동산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냈다. 2.4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실효성이 담보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반의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 기로에 서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전하고 왜 위험 상황인지를 변이바이러스 중심으로 설명해 경각심을 높였다.

2.4 대책 이후 아파트 값과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2.4 대책의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관심을 모으는 좋은 도입이었다. 물론 하향 추세라고 가격 및 전세가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라 단지 상승폭만 줄어든 것이다.

2.4대책의 주요 골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층수,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 그리고 신속한 지구 지정 및 토지 확보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며 토지주에는 최대 30%p의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한다. 3080+ 사업은 용적률을 기존 사업대비 111%p를 상향하며 이에 세대수도 더불어 늘어난다. 이럴 경우 분양금액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1차 선정 이후 7월까지 4-5차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왔다.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기존 민간재건축의 경우 조합원간 의견, 토지 보상 등 갈등이 많았는데 공공재건축을 통해 이런 갈등 요소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비 용적률을 평균 178%p를 증가시켜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물량도 많아지고 재건축 과정의 각종 행정절차를 공공에서 대신 대행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물량과 환경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장의 한수라고 한 대목이 있었는데 수공이 가는 부분이었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효식품인 전통장을 소개했다. 전통장의 종류는 크게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추장은 다이어트에, 간장은 당뇨병 예방, 된장은 항암 효과, 청국장은 여성 질환 등에 각각 효과적이다. 이들 전통장은 보관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고추장, 된장, 간장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해야 한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9.	시청률	0.000

【총 평】

‘50년 추억을 파는 시골 점방’은 땅끝 마을 시골 슈퍼에서 50년째 구멍가게를 하는 70대 노부부의 희로애락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다. 학교 폐교와 인근 상점이 문을 닫는 가운데서도 단골손님인 마을 주민을 상대로 50년간 추억을 파는 노부부의 삶을 통해 쇠락해 가는 농어촌의 모습, 주민과 함께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70대 노부부의 소확행을 생각해 보는 계기였다. 남편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큰 딸의 사망,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월과 시골 점방, 주민들의 변함없는 인정이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아내가 남편 이발 해주기, 장보고 부부의 저녁식사, 동갑내기 주민과의 담소 장면을 통해 ‘소확행’의 메시지가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조그만 동네 가게를 운영하면서 50여년의 세월을 함께 한 노부부의 소소한 일상이 잔잔한 감흥을 일으켰고,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웃 간의 정 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슈퍼를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동네사랑방’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내려고 한 시도가 효과적이었다.

길가에 위치한 시골 작은 가게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려있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가게를 들이받기도 했고 우체통이 설치되어 우편물들이 가게를 가득 채우기도 했다. 가게 앞에 위치한 작은 테이블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면면도 달라진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외국인 손님도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취급하는 물품도 조금씩 달라진다.

남편은 갑작스레 닥친 교통사고로 40여 일만에 깨어났고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남편을 위해 아내는 매번 이발을 직접 해주고 있다. 30년 전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큰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가버렸다. 그런 아픔은 심장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 이후 겨울처럼 식었던 마음은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금씩 풀어졌다.

특히,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 내용을 풀어낸 내레이션이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불박이장처럼 자리한 공간”이라고 가게를 소개한 표현은 인상적이었다.

시골 슈퍼라는 단조로운 무대를 벗어나기 위해 해남군 황산면 5일장, 초록이 번지는 들녘 모습을 보여준 설정이 소구력을 높였고 어려운 시기를 슈퍼 운영과 주민들의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점을 보여줬다.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카메라를 배치해서 가게 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잡아냈는데 좋은 시도였고, 노부부의 정겨움, 주민과의 친밀감을 통해 ‘소확행’ 인생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잘 담아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4. 10.	시청률	0.108

【총 평】

‘평화누리길 희망의 멜로디’는 대한민국 최북단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 파주, 김포를 잇는 평화누리길을 탐방하며 희망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보훈의 달을 앞두고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평화누리길을 담아 접경지역의 아픈 기억을 공존과 희망으로 생각해 보았다. 특히, 평화누리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공존, 절경, 기억, 희망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천혜의 자원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존의 매개물로 철새를, 절경에는 임진강과 황포돛대, 기억에는 실향민 모녀의 대화, 희망에는 어린이와 팔랑개비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구성이 소구력을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최북단 평화누리길을 조명하여 보편적 관심을 모았으며 평화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평화누리길 철새들의 자유로운 비행을 분단으로 막혀있는 우리의 처지와 대비시켜 분단의 아픔이 극대화했다.

북한의 황해도를 통해 연천으로 흘러드는 임진강에는 분단의 아픔이 있다. 1945년, 북한으로 연결된 철길이 끊어지면서 폐광이 된 역고드름 동굴은 6.25전쟁 때 북한군의 탄약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고드름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역고드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닿으면서 분단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

서해와 맞닿은 경기도 김포 대명항에는 전쟁의 상흔 속 위안을 주는 평온함이 서려있다. 대명항에서 새벽부터 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풍경으로 시작해 항구에서 만나는 파도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등을 조화롭고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철새들의 거쳐에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가득하고 임진강에는 황포돛배가 운용되고 있는데 실향민들이 방문한다. 철새들이 누비는 공간을 분단의 슬픔을 간직한 곳으로 묘사하고, 임진강을 다니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전해 공감을 자아냈다. 임진각의 풍경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볼 수 있으며 전쟁의 상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진강 독개 다리에서 남동생을 잃은 그날의 아픔을 담담히 전하는 내용은 평온한 일상 풍경과 대비돼 슬픔이 컸다. 철새, 들녘, 철책선, 고깃배 정박, 임진강 황포돛배 등이 최북단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었고, 부둣가 갈매기 소리, 참새 소리, 임진강 물소리, 나룻배 소리 등이 선명하게 잘 채음되어 완성도를 높였다.

남동생에게 밥도 못 먹인 채 헤어진 후 그게 영영 이별이 되었다는 가슴 아픈 가족사를 비롯해 실향민들의 망배단 제사와 사진 진열 등이 아픔으로 다가왔다. 희망을 말하는 마무리 부분에 ‘새야 새야’ 하모니카 연주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희망의 소리로 강하게 느껴졌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10.	시청률	0.036

【총 평】

‘친특! 친절한 한반도 시사 토크’에서는 북한이 2021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과 관련한 숨은 의도를 살펴보고 흥미를 이끌었고, 시청자들에게 올림픽이 주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ISSUE텔링’은 미·중 패권 다툼 속 우리 외교의 극복 방법을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구성 및 내용】

‘친특’에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따른 속내를 분석하고 차후 북한이 입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고 ‘이슈 텔링’은 미·중 패권 다툼의 실체와 역사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석했다.

친특은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관해 다루었는데,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이 왜 한반도의 데탕트 분위기에 걸림돌이 되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극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꽤 주목을 끌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소식을 전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계기로 도쿄올림픽을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와 미국, 일본들이 당황스런 입장이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았다. 북한이 북한 선수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대화를 거부할 목적을 갖고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로 부터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고도 보고 있다.

또한, 대북문제나 외교 전략에 대해 다룰 때 전문용어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감이 있어 뜻도 제대로 모르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긴장완화와 화해’라는 뜻을 지닌 ‘데탕트’의 의미와 탄생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이 왜 한반도 긴장완화에 장애가 되는지를 큰 틀에서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슈 텔링’은 미·중간의 패권 다툼을 다루면서 무엇보다 이 두 강대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힘든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고, 경제와 안보로 두 경우의 수를 나누어 우리가 얼마나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안보 관련 70여년의 동맹국인 미국과 먹거리 의존율 25%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끼여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의 외교적 기술과 어려움을 전하였다. 미국은 군사 동맹국이고, 중국은 교역 1위국인 만큼 우리정부는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60여개국이라면 중국이 교역 1위인 나라가 110여 국에 달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4. 11.	시청률	0.008

【총 평】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의 일환인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다루어 의미 있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다루었고, 이러한 우려들을 반증할만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주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아이슬란드 빙하 연구자인 스네바르 구드문손의 ‘빙하 녹는 속도’ 관련’한 인터뷰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수용자의 시선을 끄는 구성이었다.

【구성 및 내용】

폭우와 폭염 산불과 빙하 유실 등 기후변화가 가지고 온 자연재해의 모습을 준비해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했고, 뒤이어 탄소중립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의 분위기까지 전해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잘 인지시켰으며 여기에 우리도 동참을 선언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동참의 근거와 정당성을 극대화시켰다.

당진과 태안,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찾아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체크하고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이 신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가덕도 풍력발전소의 사례를 소개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정당한 배분으로 돌려주어 갈등을 해결했다.

화학섬유산업 등 실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아 그 노하우를 전달하고 향후 기대이익에 대해 전망했으며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하게 된 배경도 소개했다. 탄소국경세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탄소중립정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입을 타격까지 전망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수치로 비교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반대로 선제적으로 변화하면 글로벌 신경제질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공감이가 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별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얻은 에너지 절감 현황을 소개하고 RFID가 설치된 음식물 처리기 도입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 현황도 꽤 인상적인 결과물이었다. 마무리부분에서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구는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는 어떻게든 변화해야 된다는 의지를 북돋우는 표현이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4. 11.	시청률	0.002

【총 평】

의료복지건강 정책으로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치매 의료비용 지원과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소개했고, 청년금융지원 정책으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의료복지건강 정책 난임 치료 지원은 바뀐 정책 위주로 소개가 되었고 구체적인 금액과 예외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좋았다. 결혼 후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 대상자들에게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식을 전했는데,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한도가 110만원으로 늘어났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 확대는 초등학교 4학년의 구강관리 지원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도움이 되었다. 2021년 시범 지역의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3년간 칫솔질 교육 및 구강관리를 지원하는데 충치예방진료는 본인 부담 10%이다.

치매 의료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검사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언급해 주었다. 또한, 치매로 인한 비용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지원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치료 센터를 설치했다. 전국 256개소 시군구 보건소내에 설치해 집 근처에서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쉽터를 통해 다른 치매환자나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청년금융지원 정책은 대상이 확실하게 청년들로 정의가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고 청년통장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솔깃한 정보였다. 금융정보답게 월 얼마씩 넣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좀 더 돋보였고 신청자격과 대상도 언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대상 및 재직자 대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전해 몰입도를 높였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15세 이상 39세 미만 대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기준 월 1,462,887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통장을 만들면 매년 근로소득이 들어오고 본인이 저축하지 않아도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이 적립된다. 매월 396,000원~523,000원까지 모아져 최소 15,600,000원에서 최대 23,000,000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한 지 6개월이 지난 만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4. 11.	시청률	0.057

【총 평】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는 정부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그 취지에서부터 적용분야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5G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노후화된 SOC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왜 디지털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내용을 풀어냈다. ‘SOC 디지털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시작해서 당위성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운 내용 구성도 좋았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곧 나의 안전을 돕는 뉴딜’임을 인식시켜 주고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는 사회간접자본 SOC를 디지털화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과제와 구체적 활용 사례, 기대 효과, 국가의 투자 계획 등을 폭 넓게 살펴보았다. 정부의 뉴딜정책이 긍정적 혜택을 주는 뉴딜임을 이해시키고 그린뉴딜 정책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안전에 도모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나이 든 SOC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강검진에 빗대어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디지털화를 통한 선제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특히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그리고 아현동 KT 통신망 마비를 일으킨 사고를 예로 들어 조기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로봇 ‘에어스타’, ‘에어포터’, ‘에어라이드’ 등을 소개하여 AI 기반 SOC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C-ITS 교통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주행을 선도하는 사례도 고무적이었다. 인제양양 터널에 과열차량 알림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를 적용해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한 노력은 국민 안전을 위해 SOC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제어하고 최적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화하는 단계로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공감이 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디지털화 운영 결과, 사고예방과 비용절감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